

정치인이 읽어야 할 ‘물가 너머의 질문’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무리를 지어 전통시장을 찾은 관례가 있다. 떡볶이와 붕어빵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맛보고, 전집 앞에서 가격을 묻고 전을 구입하기도 한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와 배, 포도와 같은 과일도 구매 목록에 올라 있다. 목적은 추석 물가가 서민들의 차례상 마련에 부담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이른바 민생 탐방의 시간이다.

시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으레 묻는 것은 물가다. “올해 추석 물가, 서민들 부담은 어떤가요?” 이 물음에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힘든 내색을 비친다.

그런데 장바구니 안에 담겼을 사과 한 알에 올해의 물가 이야기만 있을까.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안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물가에 대해 읽어야 할 것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뿐 아니라 ‘왜 해마다 이렇게 요동치는가’의 문제다. 다른 이슈들도 있겠지만 물가 변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당연히 과일을 익히고 여물게 하는 기후의 문제다.

다행히 올해 추석 상을 차리기 위한 장바구니는 가벼워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9월 관측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7.4% 늘 전망이다. 그 덕에 사과값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했고, 다른 과일 값도 대체로 내림세다.

일이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사과 경우 금사과라는 말이 화자될 정도로 가격이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가격의 예측불가능성이다. 평년보다 과일값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해의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엄중한 신호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신호가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대 사과 재배 적지는 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좁혀진다. 그로부터 20년 후 2090년대에는 국내에서 사과를 상업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제주에서만 자라던 감귤은 재배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단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수십 년 안에 한반도의 과일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추석에 사과와 배를 나누어 먹고 상에 올리는 일은 오랜 세월 이 땅의 기후와 절기에 맞춰 자리 잡은 문화다. 기후가 바뀌니 문화도 변화하게 된다.

전통시장 안에 머무는 물가지수는 기후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날씨는 예측불가능한 수확의 얼굴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먼 미래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다가온 문제라는 뜻이다.

올해도 정치인들은 전통시장으로 우르르 몰려갈 것이다.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느라 바쁠 것이다. 퍼포먼스이든 아니든 정치인들이 민생 현장을 찾아 서민의 일상에 시선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민생을 이루는 다양한 의제 속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의제가 추석이라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랄 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의 지도부나 지역구 의원이 전통시장에서 붉은 사과 한 알을 집어들 때,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사과가 몇 년 뒤에도 이 가격으로 우리와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의 특산지에서도 여전히 잘 자랄 수 있을까, 지역 곳곳의 사과 산지를 몇십 년 뒤에도 지켜낼 정책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의 웅성거림은 질문이 바로 그들이 자주 말하는 ‘진짜 정치’의 본질일 것이다. 손에 쥔 붉은 사과 한 알이 품은 기후위기의 무게를 읽어낼 수 있는 그들을 만나고 싶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AI 캐릭터 채팅, 관계가 오락이 될 때



김 보 민
(IT부)

인간관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생기면 풀아가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캐릭터와의 채팅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만들어 현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시도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를 리셋하거나 종료하면 된다.

이용자가 설정한 관계는 플랫폼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AI 모델의 작동 범위 안에서 전개된다.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영향을 보여준다. 일부 캐릭터 제

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설정과 달리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다고 호소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갈등과 괴롭히는 전개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AI 캐릭터와의 채팅이 ‘가상의 이야기’로만 끝난다고만 볼 수 있느냐. 캐릭터와의 갈등이 이용자를 붙잡는 돌발 사건이 되고, 상대를 통제하거나 굴복시키는 과정이 오락으로 소비된다면 그 경험이 이용자의 생각과 감정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AI가 고도화될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더욱 흐려진다. 특히 재미와 지속적인 이용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AI 캐릭터 채팅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화와 예상 밖의 갈등이 모두 이용자를 붙잡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전자는 관계를 뜻대로 통제하는 경험을 반복시키고, 후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자극을 상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플랫폼은 대화 내용과 채류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 방식을 ‘개선’하고 다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관계의 규칙과 이용자가 머무를 환경을 설계하는 권력이 된다.

AI 캐릭터 채팅 시장은 커지고 서비스는 해외로 향하고 있다. 해외 진출은 국내 AI 산업의 성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 갈등과 성적 자극을 반복하는 구조, 국내에서도 검증하지 못한 과몰입과 유해 대화의 위험까지 수출하면서 이를 산업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기술은 AI를 점점 더 ‘인간처럼’ 만든다. 그만큼 사람도 AI가 생성하는 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AI가 어떤 행동과 감정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kb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60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72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취업을 할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소

49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1년생 옛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85년생 좋다면 무조건 말고 나가세요.



호랑이

50년생 조바심이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합니다. 62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됩니다. 74년생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86년생 오래 시간을 골수록 불리 합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3년생 운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75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87년생 술을 조심하세요.



염

52년생 꿈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64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76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88년생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뱀

5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65년생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77년생 조금씩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결실이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말

54년생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66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8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양

55년생 일이 꼬여 답답합니다. 67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9년생 사소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91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68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80년생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92년생 짧은 시간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닭

57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69년생 일에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습니다. 81년생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냅니다. 93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됩니다.



개

58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0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기 좋습니다. 82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4년생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59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1년생 무리하게 큰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83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혼수모어, 냉철한 지혜

혼수모어混水摸魚는 삼십육계 중 제20계에 해당하는 병법이다. 맑은 물을 어지럽혀 흙탕물로 만든 뒤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맑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경계심이 강하고 재빨라서 손으로 잡기 어렵다. 하지만 물을 흔들어 바다의 흙을 일으키면 물고기는 방향 감각을 잃고 둔해진다. 혼수모어는 이처럼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원하는 목표를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전략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다. 불리한 상황을 바꾸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강하다면 상대가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기술 급변, 경제적 불확실성, 침체된 시장은 마치 흔들린 흙탕물과 같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혼란 앞에서 불안해하고 몸을 사린다.

그러나 전략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위기일 때 시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변화의 흐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장은 그야말로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수시로 달라지는 유행과 SNS 마케팅은 자영업자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상권이 불황에 빠지면 업체들은 가격 파괴 경쟁이나 무리한 할인 행사로 위기를 자초한다. 그럴 때 자기만의 전략을 준비해 놓았다면 남들과 달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남들이 가격을 낮추며 출혈 경쟁에 나설 때 차별화된 메뉴로 입지를 다지고, 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 친환경 식재료를 내세워 특징점으로 만든다. 흙탕물 속에서 알찬 고객과 확실한 수익이라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삶의 진리는 명확하다. 세상이 어지럽게 흔들려도, 그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냉철한 지혜가 있다면 시련 속에서도 결실을 이룰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0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1	9	6	8	5
1	1	6	6	8	9	9	2
8	6	9	2	8	7	1	9
6	8	9	7	9	1	8	1
9	7	1	8	6	2	1	8
2	8	1	9	1	8	7	6
8	1	8	9	9	6	2	7
1	9	2	8	7	8	9	1
7	9	6	1	2	1	8	9

1	8	9	9	6	8	7	1
6	2	9	1	9	7	8	1
7	1	8	1	2	6	9	9
2	8	6	9	9	1	1	8
9	9	8	7	8	1	6	2
8	6	2	1	7	9	5	8
8	1	1	2	8	9	9	7
9	9	7	8	1	6	2	1